

# 술이 人體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東西醫學的 考察

朴承萬 · 趙鍾寬\*

## I. 緒 論

古代로부터 술은 人類의 歷史와 더불어 널리 이용되어 온 嗜好品의 한가지로 祝祭나 宗教的 儀式, 藥用등으로 貢獻한 바 컸다<sup>1)</sup>. 그러나 지속적인 飲酒는 耐性과 身體的 依存을 일으킬 뿐 아니라 肝, 胃, 脾臟, 胃腸系, 腦, 神經系등 全身의 臟器<sup>2,3,4,5,6,7)</sup>와 胎兒에도 影響을 미치며<sup>8)</sup> 精神의 荒幣化와 恐慌으로까지 發展하여 各種 現代 社會問題를 惹起시키기도 한다.<sup>1,9,10,11)</sup>

韓醫學에서 술은 五穀의 津液이며 米麴의 華英으로서 그 氣味는 모두 陽인데<sup>12,13,14,15)</sup> 少飲하면 化血行氣하고 壯神消愁하는 效果가 있으나<sup>13,15,17,18)</sup> 過飲하면 傷胃耗血 生痰動火 한다고<sup>13,16,18)</sup> 하였고, 過飲으로 인해 發生된 疾患을 酒傷이라 하여<sup>12,13,14,19)</sup> 그 症狀과 病理 機轉에 따라 酒風<sup>15)</sup>, 酒悖<sup>20)</sup>, 酒疸<sup>12,14,21,22)</sup>, 酒積<sup>14,22,23,24)</sup>, 酒泄<sup>12,25,26)</sup>, 酒疹<sup>27)</sup>, 酒癩<sup>22,24)</sup>, 酒嗽<sup>14,15)</sup>, 酒痰<sup>12,14,15)</sup>, 酒賸鼻<sup>14)</sup>등으로 多樣하게 表現하여 飲酒로 인한 弊害를 記錄하였다.

現代社會에서 알코올의 消費量은 날로 增加하는 趨勢에 있고<sup>1,9,10)</sup> 그에 따른 社會的, 經濟的, 人的 被害가 늘고 있는데<sup>9,10)</sup>, Selzer는 알코올中毒은 미국에서 心血管 疾患, 癩 다음으로 심각한 公衆保健 問題라고 하였다<sup>11)</sup>. Bourne에 의하면 家庭法院에서 處理되는 事件의 40%가 飲酒와 關聯되어 있고 殺人 가운데 醉中 殺人이 55%나 된다고 하였고<sup>10)</sup>, Kolb도 美國의 精神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內科學教室

科 入院 患者中에 알코올中毒症 患者가 精神分裂症, 老人性 精神疾患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고 하였다<sup>28)</sup>.

이에 著者는 알코올이 人體에 미치는 有害性을 살펴보고자 韓醫學 文獻의 酒傷症과 現代 醫學에서의 알코올로 인한 疾患을 比較 考察하여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 II. 本論 및 考察

### 1. 肝에 미치는 影響

알코올성肝障礙의 種類로는 크게 알코올성脂肪肝, 알코올성肝炎, 알코올성肝硬變이 있다.<sup>29,30,31,32,33)</sup>

알코올성脂肪肝은 脂質代謝의 障礙로 인한 中性脂質 특히 triglyceride의 蓄積에 의하여 輕度の 疲勞感, 倦怠感, 食慾不振 및 腹痛을 誘發하고 好酒家인 경우는 惡心, 嘔吐, 輕度の 黃疸, 腹部的 膨滿感, 下痢 등의 症狀을 發<sup>29,30,31,32)</sup>한다.

알코올성肝炎은 急性和 慢性으로 나누는데 急性<sup>29,30,31)</sup>은 全身이 나른하고, 食慾不振, 메스꺼움, 嘔逆疾, 泄瀉, 輕度の 右上腹部疼痛 및 微發熱등과 病勢가 進行되면 반복되는 嘔逆과 잦은 脂肪便, 肝腫大, 壓痛, 動脈摩擦音, 脾臟腫大는 많지 않으나 脹滿과 脫色된 糞便, 併發症으로 營養障礙로 壞血病, 脚氣病, 鐵分缺乏性貧血, 脚浮腫등이 發生한다. 黃疸과 疼痛을 수반한 瘙痒感이 있게 되고, 白血球의 增加와 發熱이 있게되며, 慢性<sup>29,30,31)</sup>은 急性보다는 가벼워서 肝臟의 腫大는 半數 以下이고, 發熱, 黃疸, 蜘蛛狀 血管腫도 훨씬 적다. 貧血과 白血球의 增加도 적다.

알코올성肝硬變<sup>29-31)</sup>은 末梢 神經症을 유발하며, 黃疸과 中樞神經系의 症狀으로 嗜眠, 昏睡 前段階症狀과 昏睡, 出血性 傾向, 腹水, 睾丸 萎縮과 女性型乳房, 腋窩脫毛症, 手掌紅斑, 蜘蛛狀血管腫, 주로 女性의 脫毛, 門脈壓의 亢進으로 인한 食道靜脈瘤, 脾腫, 腹部靜脈 擴張, 그의 白血球 減少, 血素板減少, 貧血등이 있다.

韓醫學 文獻에서 알코올성肝疾患에 대한 內容을 보면 金匱要略<sup>34)</sup>에서는 心中懊惱而熱 不能食 時欲吐 名曰 酒疸 必小便不利 其候心中熱 足下熱 是其證也 酒黃疸者 或無熱靖言 少腹滿 欲吐 鼻燥 其脈浮者 先吐之 沈弦者 先下之 酒疸 心中熱 欲嘔者 吐之愈 酒疸 下之久 久爲黑疸 目青面黑 心中如椒蒜齏狀 大便正黑 皮膚爪甲不仁 其脈浮弱 雖黑微黃 故知之 酒黃疸 心中懊惱

或腹痛 梔子大黃湯主之.이라 하여 알코올성肝疾患의 대표적 症狀으로 黃疸을 主要 症狀으로 보았으며 日久한즉 黑疸로 變한다 하여 病의 進行狀態를 說明하기도 하였다. 黃帝內經 素問<sup>15)</sup> <腹中論>에서는 血枯 此得之 年少時 有所大脫血 若醉入房 中氣竭肝傷 故月事衰少不來也.라 하였고, 巢氏諸病源候論<sup>35)</sup>의 <酒癖候>에서는 夫酒癖者 因大飲酒後 渴而引飲無度 酒與飲俱不散 停滯在於脇肋下 結聚成癖 時時而痛 因即呼爲酒癖 其狀脇下 氣急而痛이라 하여 暴飲으로 인한 肝硬變症과 類似한 症狀을 記述하였고, <酒疸候>에서는 夫虛勞之人 若飲酒多 進食少者 則 胃內生熱 因大醉當風 入水則 身目發黃 心中懊痛 足脛滿 小便黃 面發赤斑 若下之久 久變爲黑疸이라 하여 生體의 抵抗力이 떨어진 狀態에서 계속적인 飲酒를 하게되면 필경에는 黃疸이 생기며 오래되면 黑疸로 변한다고 하였다. 聖濟總錄<sup>36)</sup>에서는 酒者 熟穀之液也 其性慄悍急疾 後食而入 先食而出 能通關節而走膚 上古作湯液醴醴爲而不用 後世嗜之無節 或飲過度 停積不散 蘊滯于胃 散流諸脈 熏蒸臟腑 令人志亂 乃至不醒 有連日而無所覺知者 甚則中毒 而爲酒疸 諸熱之病也이라 하여 無節制한 과음및 지속적인 飲酒로 인한 黃疸이 생긴다고 하였다. <酒疸>篇에서는 論曰 胃虛穀少 醉以入房 冒犯風邪 胃中熱毒 隨虛入裏 小便黃赤 濕毒內聚 心下懊痛 重發肌肉則 身目發黃 或發赤斑 足脛浮腫 或下肢早則 變爲黑疸 令人心如病飢 大便黑滯 皮膚不仁 治法 概宜 先法濕毒 後分小水 餘隨證治之.이라하여 食事を하지 않은채 飲酒를 계속 함으로 黃疸이 생기며 나아가서는 肝硬變의 症狀인 浮腫과 黃疸이 日久하여 나타나는 黑疸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酒癖>에서는 論曰 胃弱之人 因飲酒過多 酒性熱 使渴而引飲 遇氣道否澁 酒與飲俱不化 停在脇肋 結聚成癖 其狀 按之有形 或按之有聲 脇下弦急 脹滿 或致痛悶 肌瘦不能食 但因酒得之 故謂之酒癖라 하여 平素 消化機能이 안좋은 사람이 지속적인 過飲時 脇下에 積聚가 생긴다고 하여 알코올성肝硬變症과 類似한 內容을 言及하였고, 陳無擇三因方<sup>37)</sup>의 <酒疸證治>篇에서는 五疸 惟酒疸辨證最多 蓋酒之爲物 隨人性量不同 有盈石而不醉者 有濡吻而車 肌亂者 以醒釀而成 有大熱毒 滲入百脈 爲病則不特發黃 溢于皮膚 爲黑爲腫有於清氣道中 則 眼黃鼻癢 種種不同 故方論中 酒疸外 有黑疸 肉疸 癖疸 勞溢久之 令人恍惚失常等 數證不同이라 하여 黃疸이 발생하는 例中 술로인하여 發生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였으며 나아가서는 精神의인 障礙까지 發展된다고 하였다. 東醫寶鑑<sup>14)</sup>중 <酒疸>篇에서는 酒疸 必小便自利 其候心中熱 足下熱 是其證也 飲酒常多 進食常少 心中懊惱 鼻燥 足熱 是謂酒疸이라하여 역시 食事を하지않고 飲酒만 하면 酒疸이 發生한다 하였고, <酒毒變爲諸病>篇에서는 醇酒之性 大熱大毒 清香美味 既適於口 行氣和血 亦宜於體 由是飲者 不自覺其過於多也 不知酒性喜升 氣必隨之 痰鬱於上 濁澁於下 肺受賊邪 金體必燥 恣食寒涼 其熱內鬱 肺氣得熱 必大傷耗其始也 病淺 或嘔吐 或自汗 或瘡癩 或鼻查 或自泄 或心脾痛 可發散而去之及其久而 病深即 爲消渴 爲

黃疸 爲肺萎 爲內痔 爲鼓脹 爲失明 爲哮喘 爲勞嗽 爲癰癩 爲難明之疾이라하여 酒傷症을 淺深으로 나누어 輕症과 重症의 症狀을 說明함으로 알코올로인한 各種 人體에 대한 有害症狀들을 記錄하였다.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韓醫學에서는 술로 인해 발생한 黃疸을 특별히 酒疸<sup>14,34,35,36,37)</sup> 이라고 하여 症狀으로는 張<sup>34)</sup>은 心中懊惱而熱 不能食 時欲吐 小便不利 心中熱 足下熱 或無熱 靖言 少腹滿 欲吐 鼻燥 下之久 久爲黑疸 目青面黑 心中如椒蒜露 라 하였고, 巢<sup>35)</sup> 身目發黃 心中懊痛 足脛滿 小便黃 面發赤斑 若下之久 久變爲黑疸라 하였으며, 曹<sup>36)</sup> 小便黃赤 濕毒內聚 心下懊痛 重發肌肉則 身目發黃 或發赤斑 足脛浮腫 或下肢早則 變爲黑疸 令人心如病飢 大便黑瘀 皮膚不仁 라하였고, 陳<sup>37)</sup>은 有大熱毒 滲入百脈 爲病則不特發黃 溢于皮膚 爲黑爲腫 眼黃鼻癢 라하여 共通的으로 不能食, 嘔逆, 面目發黃, 皮膚發黃, 小便黃赤, 心中懊惱등의 症狀을 言及하였는데 이는 알코올성脂肪肝, 알코올성肝炎의 症狀과<sup>29-31)</sup> 同一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酒疸이 甚해져서 黑疸로 變하게 된다고 하였는데<sup>34,35,36)</sup> 이는 肝硬變증에 있어서 Bilirubin이 Biliverdin으로 還元 됨으로 黑疸이 發現되는 過程<sup>29)</sup>에 該當하는 것이고, 症狀的으로도 目青面黑, 足脛浮腫, 發赤斑등으로 이는 肝硬變에서 나타나는 症狀과 一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脾臟에 미치는 影響

脾臟炎은 急性과 慢性으로 나누는데 그 대부분의 原因 은 알코올이다.<sup>38)</sup> 急性 脾臟炎의 症狀<sup>2,6,30,32)</sup>은 上腹部 腹痛, 嘔逆, 嘔吐, 背部 肋骨部 胸部 下腹部로의 放散痛, 腹痛은 持續的인 鈍痛이 特徵이다. 腹痛은 앉거나 옆으로 누울 때 緩和되는 特徵이 있다. 이때 上腹部 壓痛과 腹膨滿, 腸運動低下, 體溫上昇, 腹水, 胸水を 同伴하기도 한다. 甚한 경우 shock를 나타낸다.

알코올성慢性 脾臟炎 臨床病狀<sup>2,6,30,32)</sup>은 痛症이 主症狀이며 上腹部 또는 背로 放散痛이 特徵이며 脂肪食 或 飲酒에 의해 誘發된다. 典刑的인 慢性 脾臟炎의 경우 疼痛, 糖尿, 脂肪性 泄瀉, 脾石을 同伴한다. 上腹部 壓痛感, 重壓感, 膨滿感, 食慾不振, 嘔逆, 體重減少, 泄瀉, 便秘, 黃疸등의 症狀을 보인다.

韓醫學 書籍 가운데 술로 인한 諸病 가운데 脾臟炎과 類似한 內容을 살펴보면 東醫寶鑑<sup>14)</sup> <酒毒變爲諸病>篇에서는 醇酒之性 大熱大毒 清香美味 既適於口 行氣和血 亦宜於體 由是飲者 不自覺 其過於多也 不知酒性喜升 氣必隨之 痰鬱於上 溺澁於下 肺受賊邪 金體必燥 恣食寒涼 其熱內鬱 肺氣得熱 必大傷耗其始也 病淺 或嘔吐 或自汗 或瘡癩 或鼻查 或自泄 或心脾痛 可發散而去之 及其久而 病深即 爲消渴 爲黃疸 爲肺萎 爲內痔 爲鼓脹 爲失明 爲哮喘 爲勞嗽 爲癰

癰 爲難明之疾라하여 病的 初期에는 嘔吐, 泄瀉 및 腹痛이 發現 할 수 있다고 하여 알코올로 인한 急性 脾臟炎의 症狀과 類似하고 太平惠民和劑局方<sup>39)</sup>에서는 酒癰圓 治飲酒過度 頭眩惡心 嘔吐不止 及 酒積停滯胃間 遇飲食則吐 久而成癰 紅圓者 治丈夫 脾積氣滯 胸膈滿悶 面黃腹脹 四肢無力 酒積不食 乾嘔不止 背呻連心 胸及兩乳痛라 하여 酒積의 症候로 알코올성脾臟炎의 症狀을 記述하였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東醫寶鑑 <酒毒變爲諸病><sup>14)</sup>에서 輕症으로 생기는 嘔吐, 自泄, 心脾痛등과, 太平惠民和劑局方<sup>39)</sup>에서 脾積氣滯 胸膈滿悶 面黃腹脹 四肢無力 酒積不食 乾嘔不止 背呻連心 胸及兩乳痛의 症狀은 急慢性 脾臟炎의 症狀과 類似하고, 重症인 消渴은 糖尿의 症狀이며, 肺痿, 哮喘, 勞嗽등은 肺炎 혹 肺結核의 症狀과 類似하다고 할수 있다. 慢性 多量의 알코올中毒者들의 營養缺乏과 그로 인한 全身衰弱으로 發生될수 있는 症狀으로 생각된다.

### 3. 胃腸管 에 미치는 影響

알코올이 胃腸管에 미치는 대표적인 疾患으로는 알코올성胃炎<sup>16,6,32)</sup>을 들수 있는데 그 症狀으로는 食慾不振, 嘔逆, 嘔吐, 광범위한 上腹部不快感, 심한 경우 계속적인 嘔吐로 인한 體液 및 電解質 喪失이 나타난다.

韓醫學文獻에서 黃帝內經 素問<sup>15)</sup> <厥論>篇에서는 酒入於胃則 絡脈滿而經脈虛 脾主胃行其津液者也. 陰氣虛則陽氣入 陽氣入則 胃不和 胃不和則精氣竭也 精氣竭則不營其四肢也 라하여 알코올이 脾胃의 津液 運化의 作用에 異狀을 招來하여 不營四肢함을 기술하였다. 巢氏諸病源候論<sup>35)</sup> <酒癖宿食不消候>에서는 此由飲酒 多食魚膾之類 腹內痞滿 因而成渴 渴又飲水 水氣與食 結聚 兼遇寒氣相加 所以成癖 癖氣停積 乘於脾胃 胃得癖氣 不能消化 故令宿食不消 腹內脹滿 噯氣酸臭 吞酸氣急 所以謂之 酒癖宿食不消也라 하여 과도한 飲酒로 인한 酒傷症과 더불어 傷食症이 發生함을 기술 하였는데 이는 알코올성胃炎의 症狀과 類似 하다고 볼수 있다. <飲酒入癖疽痰候>에서는 夫飲酒人大渴 渴而飲水 水與酒停聚 胸融之上蘊積不散 而成癖也則令嘔吐 宿水色如俎汁 小豆汁之類 酸苦者 故酒癖疽痰라 하여 과도한 飲酒後 알코올성胃炎으로 인한 嘔吐로 말미암은 電解質의 損失시 나타나는 症狀과 類似하다고 보여진다.

張氏景岳全書<sup>40)</sup>에서는 酒濕傷脾 致生痰逆嘔吐 胸膈必塞 飲食減少者 酒質傷臟 致生泄瀉不已 라 하여 酒는 脾胃를 傷하여 嘔吐, 胃腕部 不快感, 食慾減少, 泄瀉등을 發한다 하여 알코올성胃炎과 類似한 內容을 기술하였다. 醫門寶鑑<sup>13)</sup>에서는 流傷脾胃 傷其形 亂其性 以至變生諸病其始也 淺 或嘔吐 或自汗 或痞疥 或心脾痛 其久也 心胃內疸 爲肺萎 爲鼓脹 …… 人善飲酒 泄瀉 腹脹 吐痰 作嘔 口乾 襲太醫曰此 胃氣虛也. 人善飲酒 便滑 尿澁 食減 胸滿 腿足漸腫 襲太

醫曰 此脾胃虛寒라 하여 알코올이 諸病을 惹起시키는 過程에서 알코올성胃炎을 爲始로하여 肝으로의 轉變過程을 기술하였다. 醫學實在易<sup>41)</sup>에서는 <陳修園醫書 72種>中에서 傷酒病 嘔逆 心煩 胸滿不食 小便不利 方書用 葛花解醒湯 取微汗而愈라 하여 嘔逆,不食 등 胃臟에 미치는 影響에 대하여 言及하였다.

以上을 綜合 하여 살펴보면 黃帝內經 素問<sup>15)</sup> <厥論>에서는 술이 脾胃에 들어가면 脾를 傷하게하여 脾主四末을 못하여 四肢無力, 四肢倦怠感 등의 症狀을 惹起하는 것으로, 巢氏諸病源候論<sup>35)</sup>과 聖濟總錄<sup>28)</sup>에서는 酒癖이라 하여 酒傷症과 함께 傷食症을 記述하였고, 張氏景岳全書<sup>42)</sup>에서는 大腸에 미치는 影響을 爲主로 記述하였다. 醫門寶鑑<sup>13)</sup>에서는 酒傷病的 轉變過程중 嘔吐症을 始初로 其他疾患이 발생함을 기술함으로 以上은 알코올성胃炎 및 알코올로 인한 大腸症狀과 類似하다고 보여진다.

#### 4. 心臟 및 血管系에 미치는 影響

알코올이 心臟에 미치는 影響中 代表的인 疾患은 알코올성心筋症<sup>2,8,29,32)</sup>을 들수 있는데 그 症狀는 靜脈系의 鬱血, 肝臟腫大, 下肢浮腫 등의 鬱血性 心不全症狀과 脚氣病이 있다.

韓醫學의 書籍中 술이 血液循環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內容을 살펴보면 格治餘論<sup>50)</sup>에서는 醇酒之性 大熱大毒 清香美味 既適於口 行氣和血 亦宜於體라 하였고, 衛生寶鑑<sup>43)</sup>의 <飲傷脾胃論>에서는 神農本草云 酒味苦甘辛 火熱有毒 酒百邪毒 行百藥 通血脈厚腸胃 潤皮膚라 하였으며 醫宗必讀<sup>18)</sup>에서는 酒 味苦甘辛 有熱毒 入肺與胃經少飲卽 化血行氣 壯神消愁 過飲卽 傷胃 耗血 生痰動火 醉而胃傷者 輕卽致痰 重卽亡神 通血脈而破結 厚腸胃而潤肌 宜心氣以忘憂 助膽經以 發怒 善行藥勢 以禦風寒 燒酒 散寒破結 損人尤甚라 하였고 醫門寶鑑<sup>13)</sup>에서는 酒者 米穀之華英 雖能益人 亦能損人 蓋其性大熱有毒 少飲則 行氣和血 乃陶性情 過飲則 肺受熱邪 流傷脾胃 傷其形 亂其性 以至變生諸病其始也 淺或嘔吐自汗 或瘡疥 或心脾痛 其久也 心胃內疸 爲肺萎 爲鼓脹 爲喘哮 爲勞嗽 爲吐衄 爲癲癩 爲難狀之病 以至損命.人善飲酒 便滑 尿澀 食減 胸滿 腿足漸腫 襲太醫曰 此脾胃虛寒.人嗜酒 病痰半年 患脹滿 脈弦而澀 重取則大 手足瘦腹如 蜘蛛라 하였으며, 金匱要略<sup>34)</sup>에서는 酒疸 下之久 久爲黑疸 目青面黑 心中如橄欖霧狀 大便正黑 皮膚爪甲不仁이라 하였고, 聖濟總錄<sup>36)</sup>에서는 <酒疸>論曰 胃虛穀少 醉以入房 冒犯風邪 胃中熱毒 隨虛入裏 小便黃赤 濕毒內聚 心下懊痛 重發肌肉則 身目發黃 或發赤斑 足脛浮腫 或下肢早則 變爲黑疸 令人心如病飢 大便黑澀 皮膚不仁 治法 概宜 先法濕毒 後分小水 餘隨證治之.이라 하였으며, 巢氏諸病源候論<sup>35)</sup>에서는 <酒疸候> 夫虛勞之人 若飲酒多 進食少者則 胃內生熱 因大醉當風 入水則 身目發黃 心中懊痛 足脛滿 小便黃 面發赤斑 若下之久 久變爲黑疸이라 하

였다.

以上을 綜合하여 보면 술은 五穀의 津液이며 米穀의 華英으로서 그 氣味는 모두 陽이며<sup>12,13,14</sup> 少飲하면 化血行氣하고<sup>13,16,17,18</sup>, 行百藥 通血脈厚腸胃<sup>18</sup> 潤皮膚하고<sup>43,18</sup>, 壯神消愁<sup>18</sup>, 宜心氣以忘憂 助膽經以發怒 善行藥勢 以禦風寒하는 效果가<sup>18</sup> 있다함은 皮膚血管의 擴張, 血流의 增加를 意味하며<sup>2)</sup>, 醫門寶鑑<sup>13</sup>에서 言及한 便滑 尿澁 食減 胸滿 腿足漸腫등의 症과 金匱要略<sup>34</sup>聖濟總錄<sup>36</sup> <酒疸>濕毒內聚 心下懊痛 重發肌肉則 身目發黃 或發赤斑 足脛浮腫 或下肢早則 變爲黑疸 令人 心如病飢 大便黑滲 皮膚不仁, 巢氏諸病源候論<sup>35</sup><酒疸候> 에서 心中懊痛 足脛滿 小便黃 面發赤斑 若下之久 久變爲黑疸, 醫門寶鑑<sup>13</sup>에서 人善飲酒 便滑 尿澁 食減 胸滿 腿足漸腫 龔太醫曰 此脾腎虛寒등의 內容은 酒疸이 變하여 黑疸로 變한 症狀으로 肝脾腫大, 鬱血性心不全의 症狀과 同一하며 알코올성心筋症의 症狀들과 類似하다고 思料된다.

## 5. 筋肉에 미치는 影響

알코올이 筋肉에 影響을 미쳐 발생하는 알코올성筋疾患은 筋力弱화, 筋萎縮症을 주症狀으로 하는데 1. 急性 알코올성筋疾患 2. 無症狀의 알코올성筋疾患 3. 晩成 알코올성筋疾患 4. 急性 低칼륨성 筋疾患등으로 分類<sup>5,44</sup>한다.

첫째, 急性 알코올성筋疾患은 急性 筋肉痛, 筋浮腫, 褐色小便, 大腿四頭筋에 국소 筋痙攣, 疼痛 및 浮腫이 오며 筋力弱화가 수반된다. 症狀이 약할 때는 筋肉에 疼痛과 壓痛만 올수 있다. 局所의 심한 痙攣은 장단지에 쥐가 난 것 같이 약 20-30초 계속되다가 후에 몇시간 동안 疼痛만 남는다. 심한 경우에는 筋壞死로인하여 myoglobinuria가 생겨 급성 腎不全症으로 死亡하기도 한다.

둘째, 無症狀의 알코올성筋疾患은 臨床症狀 없이 血清 CK가 증가되어 있다.

셋째, 慢性 알코올성筋疾患은 四肢의 近位骨格筋에서 서서히 진행되는 筋力弱화와 輕度の 筋萎縮이 있으나 禁酒를 하면 서서히 筋力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넷째, 急性 低kalume性 筋疾患은 급격한 筋力弱화, 筋痙攣이나 疼痛 및 腫脹은 없고 K을 투여하면 곧 정상으로 된다. 장기간의 飲酒로 嘔吐와 泄瀉에 의해 K결핍으로 인한다.

韓醫學書籍中 이와 類似한 內容을 살펴보면 黃帝內經 素問<sup>15</sup> <厥論>에서는 酒入於胃則 絡脈滿而經脈虛 脾胃不行 其津液者也. 陰氣虛則陽氣入 陽氣入則胃不和 胃不和則精氣竭也 精氣竭則 不營其四肢也라 하여 술이 脾胃를 傷함으로 筋肉疾患이 온다고 하였고, 素問病態論篇<sup>15</sup>에서는 帝曰 有病身熱 解脛 汗出如浴 惡風少氣 此爲何病 岐伯曰 病名曰 酒風이라 하여 酒로 인한 解脛症을, 太平惠民和劑局方<sup>39</sup>에서는 酒癩圓 治飲酒過度 頭眩惡心嘔吐不止 及 酒積停

瘀胃間 遇飲食則吐 久而成癖 紅圓者 治丈夫 脾積氣滯 胸膈滿悶 面黃腹脹 四肢無力 酒積不食 乾嘔不止 背伸連心 胸及兩乳痛라 하여 飲酒로 인한 四肢無力을 言及 하였다. 聖濟總錄의 <酒癖>에서는 論曰 胃弱之人 因飲酒過多 酒性熱 使渴而引飲 遇氣道否澁 酒與飲俱不化 停在脇肋 結聚成癖 其狀 按之有形 或按之有聲 脇下弦急 脹滿 或致痛悶 肌瘦不能食 但因酒得之 故謂之 酒癖라 하여 알코올성 肝硬變시에 并發症으로 나타날수 있는 營養缺乏으로 인한 肌瘦症狀에 대하여 言及하였다.

以上的 內容을 綜合하여 볼때 黃帝內經 素問<sup>15)</sup> <厥論>에서는 酒入於胃則 一胃不和 一不營其四肢也 라하여 脾胃不和를 야기해서 筋肉의 疾患을 일으킨다는 것을 기술하였고, 素問病態論篇<sup>15)</sup>에서는 酒風이라 하여 解脛 즉 筋力弱화와 筋無力症<sup>40)</sup>을 표현하였고, 聖濟總錄<sup>36)</sup> <酒疸>에서는 一重發肌肉則 身目發黃 或發赤斑 足脛浮腫 或下肢燥則 變爲黑疸, <酒癖>에서는 一或按之有聲 脇下弦急 脹滿 或致痛悶 肌瘦不能食 라하여 西洋醫學에서의 肝硬變에 檢발된 營養缺乏으로 인한 筋肉의 異常을 言及한 것으로 생각할수 있는데 술로 인한 筋疾患 發生機轉은 첫째, 술의 多濕多熱한 性質에 의해 肺氣를 傷하여 肺主氣, 衛氣出於肺등의 機轉으로 發生된 衛氣<sup>40)</sup>를 傷하게 하여 少氣 하고 全身의 筋肉無力을 유발하고, 둘째로는 술이 직접적으로 脾胃에 影響을 주어 胃의 營養吸收 作用에 障礙를 수반하고 脾主四末, 脾主肉등의 機轉에 장애를 줌으로써 筋肉의 疾患을 유발할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酒癖의 症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肝硬變시 兼發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6. 알코올中毒

알코올의 攝取에 의하여 身體的 精神的 社會的으로 障礙가 惹起된 상태를 알코올中毒症 (Alcoholism) 이라 하며, 臨床的으로 알코올中毒症은 急性알코올中毒, 알코올依存症 및 알코올 精神病으로 分類되어 진다.<sup>45)</sup>

韓醫學 書籍중 이와 類似한 內容을 살펴보면 黃帝內經靈樞<sup>20)</sup> <論勇>에서는 怯士之得酒 怒不避勇士者 何臟使然 少俞曰 酒者 水穀之精 熱穀之液也 其氣慄悍 其入于胃中則胃脹 氣上逆 滿於胸中 肝浮膽橫 當是之時 固比干勇士 氣衰則悔與勇士同類 不知避之 名曰 酒悖也.라 하였고, 巢氏諸病源候論<sup>35)</sup> <酒瘕候>에서는 人有性嗜酒 飲酒既多 而食穀常少 積久漸瘦 其病遂常 思酒 不得酒即吐 多睡不得能食 云是胃中有蟲使之然 名爲酒瘕라 하여 제리네크의 알코올中毒 症의 4病狀說에 해당하는 內容과 類似하며<sup>46)</sup> <飲酒中毒候>에서는 凡酒性有毒 人若飲之 有不能消 便令人煩毒悶亂 이라 하였고, <惡酒候>에서는 酒者 水穀之精也 其氣慄悍而有 大毒 入於胃則酒脹 氣逆上逆於胸內 熏於肝膽 故令肝浮膽橫而光發變怒 失於常性 故云惡酒也 이라하였으



며, 東垣十書<sup>47)</sup>에서는 <論飲酒過傷>편에 夫酒者 大熱有毒 氣味俱陽 乃無形之物也 若傷之 止當發汗 散出則愈矣 此最妙法也 其此莫如利小便. .... 葛花解醒湯 治飲酒太過 嘔吐痰逆 心神煩亂 胸膈痞塞 手足戰搖 飲食減少 小便不利. 라 하여 急性 알코올중독症에서 볼수있는 精神 및 行動障碍를 記述한 것으로 보여진다. 衛生寶鑑<sup>43)</sup>에서는 <飲傷脾胃論>에서 神農本草云 酒味苦甘辛 火熱有毒 酒百邪毒 行百藥 通血脈厚腸胃 潤皮膚 久飲傷神損壽 若沈嗜過度 其焦烈之性 撓擾於外 沈酒之體 淹滯於中 百脈沸騰 七神送亂 過傷之毒一發 耗眞之病百生이라하여 長期間에 걸친 알코올중독 症狀中的 하나인 七神送亂 卽 精神障碍를 기술하였다. 또한 東醫寶鑑<sup>14)</sup> <酒傷>에서는 因而大飲則 氣逆 酒曰 飲多則 肺布葉舉 故氣逆而上奔也 酒者 五臟之津液 米麴之華英 雖能人亦能損人 何者 酒有大熱大毒 大寒凝海性酒不永是氣熱也 飲之昏亂 易人本性 是其毒也 若屢風寒 宜血脈 消邪氣 引藥熱無過於酒也 若醉飲過度 毒氣攻心 穿腸窩腸 神昏錯亂 目不視物 此則喪生之本也라 한 內容에서는 易人本性이라하여 急性알코올중독症中 精神障碍를 表現하였고, <酒毒變爲諸病>에서는 醇酒之性 大熱大毒 清香美味 既適於口 行氣和血 亦宜於體 由是飲者 不自覺其過於多也 不知酒性喜升 氣必隨之 痰鬱於上 溺瀝於下 肺受賊邪 金體必燥 忤食寒涼 其熱內鬱 肺氣得熱 必大傷耗其始也 病淺 或嘔吐 或自汗 或瘡疥 或鼻查 或自泄 或心痛 可發散而去之及其久而 病深卽 爲消渴 爲黃疸 爲肺萎 爲內痔 爲鼓脹 爲失明 爲哮喘 爲勞嗽 爲癰瘤 爲難明之疾, 醫門寶鑑<sup>13)</sup>에서는 酒者 米穀之華英 雖能益人 亦能損人 蓋其性大熱有毒 少飲則 行氣和血 乃陶性情 過飲則 肺受熱邪 流傷脾胃 傷其形 亂其性 以至變生諸病其始也 淺或嘔吐 或自汗 或瘡疥 或心痛 其久也 心胃內疸 爲肺萎 爲鼓脹 爲喘哮 爲勞嗽 爲吐衄 爲癰瘤 爲難狀之病 以至損命.라 하여 濟衆新篇<sup>19)</sup>에서는 酒者 穀液 大熱有毒 少飲 通脈 過飲身熱 尿赤 嘔逆 自汗 酒渣 甚卽 爲消渴黃疸 肺內痔 鼓脹 失明 勞嗽 癰瘤이라 하여 심하면 알코올성癰瘤症이 發현한다고 하였다. 證治彙補<sup>48)</sup>에서는 <傷酒>에서 酒之爲物 氣熱而質濕 <內經>氣味俱陽 陰寒之時 少飲 能禦邪 助神 壯氣活血 忤飲卽生痰益火 耗氣損精 令暴疾暴死 世人認爲痰厥中臟而不和酒色自狀之所致也.라 하여 과도한 飲酒로 인한 卒然死에 대하여 言及하였다.

以上的 內容을 綜合하여 보면 韓醫學 文獻에 나와있는 內容이 西洋醫學에서 분류한 알코올중독症狀과 一致시킬 수 는 없지만 黃帝內經靈樞<sup>20)</sup> <論勇> 에서 言及한 酒悖는 肝浮膽橫으로, 巢氏諸病源候論<飲酒中毒候><sup>35)</sup>에서는 煩毒悶亂으로, <惡酒候><sup>35)</sup>에서는 氣逆上逆於胸內 熏於肝膽 故令肝浮膽橫而光髮變怒 失於常性등의 症狀으로, 東垣十書<sup>47)</sup> <論飲酒過傷>에서는 飲酒太過하면 嘔吐痰逆하여 心神煩亂,胸膈痞塞 手足戰搖 飲食減少 小便不利라 한 內容들은 급성 알코올중독症 및 알코올중독症의 症狀<sup>29,49)</sup>과 同一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중 巢氏諸病

源候論<sup>35)</sup> <酒癩候>에서 “酒癩는 其病遂常思酒”라 한 內容은 알코올中毒症과 가장 類似한 內容이라 思慮된다. 그러나 그 原因을 胃中の 蟲으로 認識한 것은 再考해 보아야 할 部分으로 思慮된다.

또한 衛生寶鑑<sup>43)</sup> <飲傷脾胃論>의 百脈沸騰 七神送亂, 東醫寶鑑<sup>14)</sup> <酒傷>의 飲之昏亂 易人本性 神昏錯亂 目不視物등의 症狀은 西洋醫學에서의 알코올성精神病中 알코올성幻覺症과<sup>28,49)</sup> 類似하다고 생각된다.

東醫寶鑑<sup>14)</sup> <酒毒變爲諸病>, 醫門寶鑑<sup>13)</sup>, 濟衆新篇<sup>19)</sup> 등에서 言及한 失明 癲癇등은 알코올성精神病中 震顛譫忘 혹 神經系의 異常에서 기인된 알코올성痲疾의 症狀과<sup>28,49)</sup> 類似하다고 思慮된다.

### Ⅲ. 結 論

알코올이 人體에 미치는 影響에 대하여 東西醫學의으로 比較 考察해 본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알코올성肝疾患은 酒疸, 酒癖, 酒積, 鼓脹과 瘡癩등에 該當되며 黑疸은 알코올성肝硬變과 類似하다.
2. 알코올성脾腸炎 및 胃腸疾患은 嘔吐, 自泄, 心脾痛등으로 表現되었으나, 分明하게 分類되지는 않았다.
3. 酒風은 알코올성筋肉疾患과 類似하다.
4. 酒悖는 急性 알코올中毒에 該當하며, 主症狀은 肝浮臈橫, 煩毒悶亂으로 表現 하였다.
5. 酒癩는 알코올依存症에 該當되며, 主症狀은 遂常思酒라 表現 하였다.
6. 알코올성幻覺症은 百脈沸騰 七神送亂, 飲之昏亂 易人本性, 神昏錯亂 目不視物등의 症狀으로 表現하였다.
7. 癲癇은 알코올성痲疾의 症狀과 유사하다.

## 參 考 文 獻

1. 林永珍 : 入院한 알코올성精神障者에 對한 臨床的 研究 -全南地方을 中心으로-, 신경정신의학, 21-3:471-479, 1982.
2. 다카스 도시아키(박윤중 안용근 옮김) : 술과 건강, 서울, 전파과학사, pp.38-47, 85-116, 125-138, 151-153, 1992.
3. 김진국 : 알코올리즘의 진단과 치료, 정신의학보, 7-10:322-324, 1983.
4. 金秉厚 : 알코올에 의한 慢性 腦症候群, 臨床藥學, 10-8:61-65, 1988.
5. 한대용 : 알코올성筋疾患, 서울, 臨床藥學, 10-8:73-74, 1988.
6. 현진해 : 술과 消化器 疾患, 臨床藥學, 10-8:12-17, 1988.
7. 洪性媛 外 : 酒傷의 觀察法에 對한 文獻的 考察(大韓韓醫學會誌), 11-1(의권19호):9-23, 1990.
8. 전선희 : 胎兒의 알코올症候群, 臨床藥學, 10-8:66-69, 1988.
9. 吳太元 外 : 綜合病院 精神科에 入院한 알코올성障者들, 신경정신의학, 19-3:221-233, 1980.
10. Bourne, P.G. : Alcolism, N.Y and London, Academic Press, 1973.
11. Selzer, M.L. : Alcoholism and Alcoholic Psychooses in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 III. Vol.2. Baltimore, London, Williams and Wilkins Company.
12. 吳得泳 : 惠庵醫方, 서울, 醫學社, p.133, 264, 295, 1978.
13. 周明新 : 醫門寶鑑, 서울,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pp.112-113, p.148, 160, 1987.
14. 許 浚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p.131, pp.239-240, 431-433, 492, 1986.
15. 王水 註: 黃帝內經素問, 臺北, p.19, 110, 308, 327, 354, pp.345-346, 1972.
16. 李時珍 : 本草綱目, 서울, 高問社, pp.891-899, 1973.
17. 朱震亨 : 格治餘論(東垣十種醫書中), 서울, 大星出版社, p.491, 1983.
18. 李中梓 : 醫宗必讀, 臺南, 綜合出版社, p.142, 1976.
19. 康明吉 : 濟衆新編, 서울, 杏林書院, p.41, 85, 175, 1975.
20. 王水 註: 黃帝內經 靈樞, 臺北, 臺北中華書局, p.76, pp.106-107, 193-194, 1972.
21. 吳 謙 :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608-610, 1982.
22. 戴士恭 : 證治要訣, 臺北, 新文豐出版公社, p.18(의부전록 권314), 1979.

23. 沈金鰲：沈氏尊生書，臺北，自由出版社，p.337，1979.
24. 王肯堂：證治準繩，臺北，新文豐出版公社，pp.29-30(第1冊)，1979.
25. 林佩琴：類證治裁，서울，成輔社，p.162, 269, 293, 1980.
26. 秦景明：證因脈治 臨證醫典，臺北，旋風出版社，券3，pp50-51，券4，p.66，1978.
27. 陸青節：萬病醫學類門，臺北，大中國圖書公社，內科內傷病，p.177，內科外感病，pp.124-125，1980.
28. Kolb,L.C：Modern Clinical Psychiatry, Philadelphia, W.B. Saunders Company, London, 1977.
29. 金秉雲 外：肝系內科學，서울，東洋醫學研究院，pp.245-247, 598-611, 1989.
30. 李文鎬 外：內科學(下)，學林社，서울，p.2390, 1986.
31. 全國韓醫科大學 肝系內科學教授共著：肝系內科學，東洋醫院研究院出版部，서울，pp.230-231, 598-611, 1987.
32. 柳基遠 外 10人：脾系內科學，서울，그린문화사，p.228, 268, pp.308-312, 1991.
33. 金永萬：간장병 치료의 虛와 實，서울，대성출판사，pp.64-88, 1986.
34. 張仲景：金匱要略，成輔社，서울，pp.74-76, 1985.
35. 巢元方：諸病源候論校釋，北京，人民衛生出版社，pp.397, 619, 620, 750-753, 769, 1983.
36. 曹孝忠：聖濟總錄纂要卷十一，臺北，pp.739-239, 739-242, 739-243.
37. 陳 言：陳無澤三因方，臺北，旋風出版社，p.19, 1967.
38. 이중달：그림으로 설명한 병리학，서울，고려의학，pp.509-511, 1990.
39. 陳師文：太平惠民和劑局方，旋風出版社，臺北，pp.98-99, 1975.
40. 張介賓：張氏景岳全書，서울，翰成社，p.322, 1978.
41. 陳修園：醫學實在易(陳修園醫書七十二種中)，臺北，文光圖書公司，p.328, 1981.
42. 張子和：儒門事親，臺北，旋風出版社，pp. 13-14, 1980.
43. 羅天益：衛生寶鑑，서울，金剛出版社，pp.32-33, 1981.
44. 민성길：最新精神醫學，서울，一潮閣，pp.153-158, 1987.
45. 黃義完 外：東醫 精神醫學，서울，現代醫學書籍社，pp.427-440, 1987.
46. 사쿠라이 히데야：성인병 자기 건강 체크법，서울，태웅출판사，pp.57-58, 1989.
47. 李東垣：東垣十種醫書，서울，대성출판사，pp.56-57, p.119, 161, 491, 1983.
48. 李用粹：證治彙補，臺北，旋風出版社，pp.102-105, 1965.
49. 李定均：精神醫學，一潮閣，서울，pp.365-381, 1987.